



세인트폴 대성당의 서쪽 정면

「세인트폴 대성당」 잿더미에서 이룩한 걸작품

김우영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beladomo@cerik.re.kr

런던 대화재



런던 대화재

1666년 9월 2일 새벽 2시, 빵공장에서 시작된 불이 런던 시내로 번져 나갔으나, 소방 담당자의 무책임함으로 인해 조기에 진화되지 않고, 5일 동안 87채의 교회와 1만 3,000여 채의 집이 불타는 대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른바 런던 대화재(Great Fire of London)였다. 당시 인구 8만명 중 7만여 명이 집을 잃고 노숙자가 되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그의 예언서에서 런던 대화재를 예언하면서, “20의 3배에 6을 더한 해에 런던은 불타고 정의로운 자의 피를 요구하도다”라고 하였다. 이때, 전통적인 고딕 양식의 구성당도 소실되었다. 604년에 세인트폴 대성당(St. Paul's Cathedral)이 있는 현재의 지역에 주교좌 교회가 창설되었는데, 바이킹의 약탈로 교회가 불타자 962년에 다시 지었다.

1087년에 다시 화재를 만나서 소실되어 노르만 양식의 석조 건축물로 다시 짓기 시작해서 약 200년이 걸려 1310년에 완성되었으나, 1561년에 화재로 인해서 첨탑이 소실되고, 신랑부(身廊部)도 수복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 1634년부터 I. 존스의 손에 의해서 수

리가 개시되었지만 런던 대화재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었다.

크리스토퍼 렌

이미 대화재 이전부터 성당의 재건에 참여해 왔던 크리스토퍼 렌(Christopher Wren, 1632~1723)은 오래 전부터 불안해 보였던 옛 성당이 탑 아래에서 심각한 징후를 나타내고 있어, 그 탑을 부수고 더 큰 탑을 세운 뒤 그 위에 대형 파인애플 모양의 돔을 씌우자고 제안하였다.

렌은 1657년 런던대학의 그레셴칼리지, 1661년 옥스퍼드대학의 천문학 교수가 되었으나, 1663년에 건축가로 방향을 바꾸었다. 1665~1666년의 9개월 동안 파리에서 독학으로 건축을 배웠고, 1666년 런던



크리스토퍼 렌 초상화

대화재를 계기로 런던 재건 계획을 국왕에게 제출하였다. 이 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를 계기로 1667년 대화재 부흥 활동의 한 감독관으로 임명되었다. 1669년에는 왕실관계의 건설총감이 되었고, 그 결과 시내 51개 교회와 세인트폴 대성당을 재건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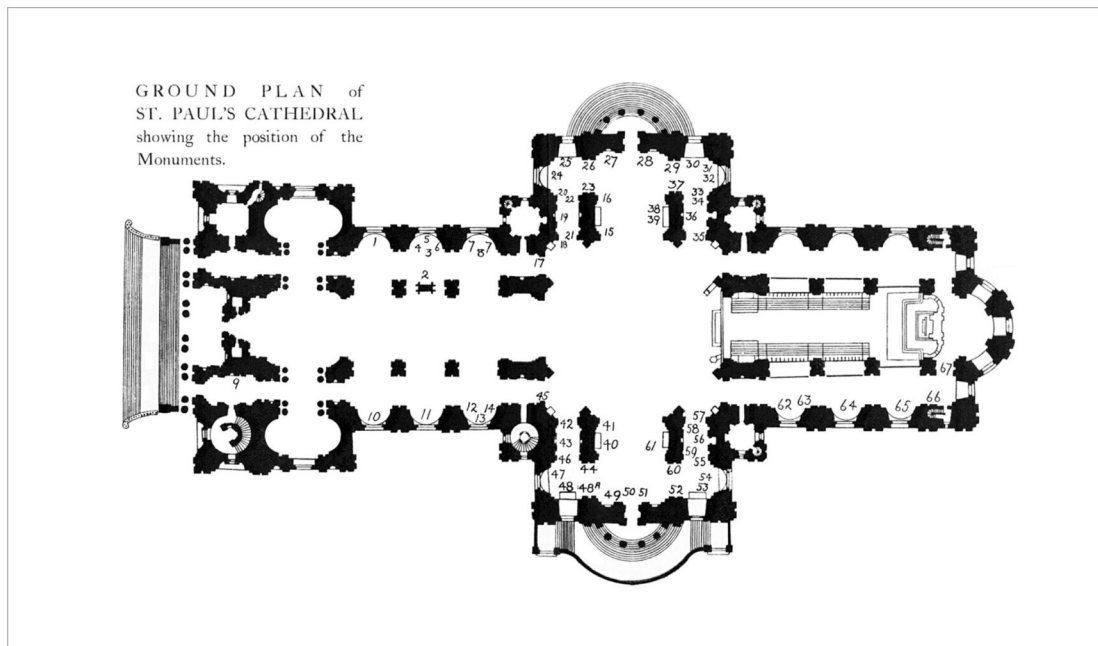
렌이 낸 아이디어의 대부분은 프랑스 건축, 특히 프랑수아 망사르의 작품인 파리의 발드그라스가 그 원천이었다. 렌은 딱 한 번 바로 1665년의 파리 여행 밖에는 국외로 나가본 적이 없었지만, 조판화 컬렉션 등 방대한 장서를 소장하고 있어 이탈리아, 특히 로마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

예를 들면 렌은 미켈란젤로의 성 베드로 대성당 돔을 면밀히 연구하였다. 세인트폴 대성당의 내부는 그린링 기번스의 목세공과 제임스 손힐 경이 돔에 그린 프레스코로 한층 더 격조가 높아졌다.

설계안의 변화

1669년에 설계 제1차 재건안은 대성당의 중앙이 아니라 서쪽 정면에 돔을 올리는 것이었는데 성직자들의 찬동을 얻지 못하였고, 1673년 렌이 제시한 건축안은 기본적으로 십자형 플랜에 대원개(大圓蓋)를 조합한 것으로 당시의 영국에서는 획기적인 안이었다.

대모형(Great Model)이라고 이름 붙인 이 안은 그가 직접 견문한 당시의 프랑스 건축과 동판화 등을 통해서 배운 이탈리아 르네상스 건축의 특색을 교묘하게 살린 안이었다. 그러나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할 때처럼 나중에 교회 당국은 그것이 성당 같지 않다는 이유로 회중석이 긴 전통적인 설계를 고집하였다. 결국 렌은 일단 라틴 십자형인 세로 방향의 설계로 되돌아갔으나, 교차부에는 돔과 탑을 조합한 4층짜리 구조물을 올리기로 하였다. 또한, 공 모양의 기단과 쌍을 이룬 기둥으로 원형 고상부를 지지하고,



세인트폴 대성당의 라틴 십자형 평면.

인류 역사와 함께한 건설 상품 100선 82

소형 돔을 올린 다음 마지막으로 플리트가의 세인트 브라이드 성당을 위해 준비했던 것과 비슷한 탑을 세우기로 하였다.

이 설계안으로 1675년에 국왕의 승인을 얻었으나, 렌은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설계안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설계안에 대한 수정 작업을 통하여 1710년에 완성하였다.

세인트폴 대성당의 특징

성당의 서쪽 정면은 2층으로 원주를 쌓고, 양쪽에 소탑을 가지며, 신랑 교차부에 직경 112피트(약 34m)의 돔을 가진다. 돔에는 로마의 산 피에트로 대성당의 영향이 느껴지는데, 돔을 지지하는 원주는 균등하게 배치되고 서쪽 정면에도 대 오더를 이용하지 않아, 바로크 시대의 건물이면서 억제적인 구성을 이루고 있다. 또한 신랑을 지지하는 구조에 고딕적 벽을 내장하고 있는 점에서 영국의 경험주의적 설계법이 느껴진다. 건물의 전장은 515피트(약 157m)로 산 피에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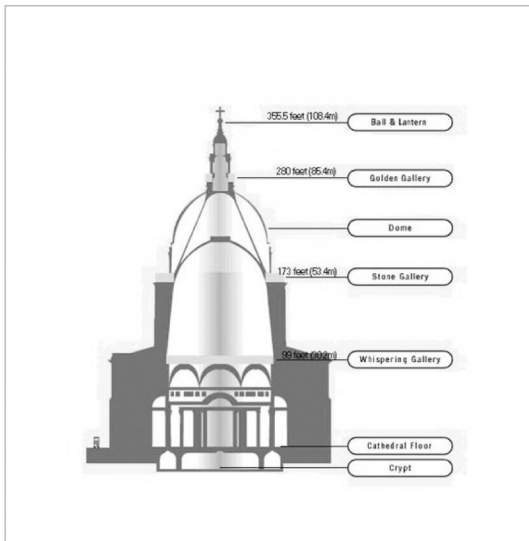
대성당보다 조금 작는데, 이만한 규모의 교회를 한 사람의 건축가가 모두 설계한 예는 이 시대에 전무하며, 양식적 통일감이 넘친다. 서쪽 정면의 좌우를 굳히는 쌍탑의 바로크풍(風) 형태도 엄격한 고전성과 환상적인 바로크와의 조화를 추구하여 영국 건축사에 획기적인 렌의 작품을 잘 나타내고 있다.

성당의 돔을 지지하는 것은 회중석, 트랜sept, 성가대석이 만나는 곳에 있는 8개의 교대다. 원안에서는 이 8개의 교대 사이의 아치들이 모두 같았으나, 사선 방향의 아치들이 직각 방향에 있는 아치들보다 더 좁은 만큼 강도를 더 높여야 했다. 그에 따른 시각적인 편차를 바로잡기 위해 대형 반월창 혹은 발코니를 사선 방향으로 놓아 주요 입구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마치 8개의 똑같은 아치들이 하나의 고리를 이루고 있는 듯하게 하였다.

이전에 건축된 피렌체 대성당이나 성베드로 대성당의 돔과 같이 세인트폴 대성당의 돔은 이중으로 되어 있다. 즉, 내부 돔은 안에서 보이고 외부 돔은 밖에서 보이는 구조다. 또한 돔 위에 아주 무거운 큐폴라를 얹고 싶었던 렌은 안과 밖에서 두루 보이는 벽들로 된 원뿔체를 추가하였다. 주랑보다 높이 올라간 이 원뿔체는 큐폴라를 지탱한다.

세인트폴 대성당을 짓는 40년 동안 시공업자만 14명이나 되었고, 이들은 포틀랜드 채석장에서 석재를 캐는 일에서부터 현장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공정의 모든 단계를 감독했다. 피크에 다다랐던 1694년에는 석공 64명에 수많은 목수, 배관공, 조각사, 미장공들이 고용되었다.

조각가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린링 기번스는 에드워드 피어스와 함께 외곽의 석조 조각을 맡았다. 돔 기부 내측의 회랑은 원형의 벽을 타고 작은 소리도 전



세인트폴 대성당의 상단부 단면

하기 때문에 속삭임의 회랑(whispering gallery)이라고 한다.

영국인의 용기와 회복력 상징

여러 번 불타던 세인트폴 대성당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또 한 번의 수난을 맞는다. 독일군이 세인트폴 대성당을 목표로 공격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은 큰 손상을 입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세인트폴 대성당은 나치의 공격에 맞선 영국인들의 용기와 회복력의 상징이 되었다.

크리프트(지하 성당)에는 넬슨, 화가 타나, 웰링턴 공, 그리고 렌 경을 비롯해 유명인의 묘가 많다. 대화재에도 비교적 피해 없이 살아남은 유일한 기념비는 세인트폴 대성당의 주미 사제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인 존 던의 기념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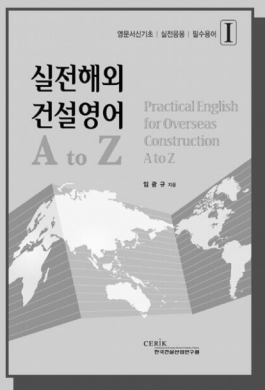
위대한 웰링턴 공작도 이곳에 묻혀 있으며 회중석에 거대한 기념비가 있다. 넬슨 경은 돛 중앙부 지하에 안치되어 있는데, 그의 유해는 관 안에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다.

이 성당에서 존경받는 다른 유명인들로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아라비아의 로렌스,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Fleming 경을 비롯하여 조슈어 레이놀즈 경, J. M. W. 터너, 에드워드 헨리 랜시어, 윌리엄 홀맨 헌트(그의 작품인 <세상의 빛>이 성당 안에 있다), 존 싱어 사전트 등 쟁쟁한 화가들이 있다. 세인트폴 대성당은 국장(國葬)을 치르고, 추수감사절 국가 예배를 열고, 왕실의 행사를 개최하는 데 쓰인다.

1965년 윈스턴 처칠의 장례식을 치르기도 했고, 찰스 왕자와 다이애나 스펜서는 1981년 이 성당에서 결혼했다. CERIK

도 · 서 · 안 · 내

실전해외건설영어 / 임광규 지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펴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내 건설기업의 글로벌 건설 인력 양성을 통한 국제 건설시장 진출과 프로젝트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총 5권의 「실전해외건설영어」 출간을 기획하고 이 중 제1권을 지난해 발간하였다.

「실전해외건설영어」은 영문 서신 작성의 기초부터 해외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던 400여 건의 영문 서신 사례를 편집, 주석을 달았다.